

한국수어 정비 사업: 한국수어사전(한국수어의 기록)

이현화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주무관

1. 서론

한국수어¹⁾는 음성 언어와는 다른 고유한 문법 체계를 가진 시각 언어이며 오랜 역사 동안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사용자의 수가 적고 언어의 양식이 음성 언어와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국수어와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0년부터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국수화사전(2005), 일상생활 용어 수화집(2007~2012), 전문 용어 수화집 등 많은 결과물을 내놓았다. 사업의 방향은 수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인의 지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어를 표준화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맞추어졌지만 언어의 특성상 변이가 많은 수어를 표준화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1) '수어'는 시각-운동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농인의 제1언어이다. 기존에는 '수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농인의 언어로서 차별받아 온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농인의 정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어'가 공식 용어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어'를 사용하되, 참고 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에 '수화'가 사용된 경우 이를 그대로 표시하였다.

사업의 결과물이 농사회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국수어를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선언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음성 언어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수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만연하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의 언어적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자 한국수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의 분야와 종류를 늘리는 등 한국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진행한 사업의 기초를 살펴보고 관련 사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수어사전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 7월 1일 ‘한국 표준수화 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추진위원회는 2010년까지 수어 표준화 및 수어 연구를 담당하였다. 이 추진위원회는 한국수어는 같은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농인 간 의사소통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수어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통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그 당시 사용되고 있는 수어의 다양한 단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표준화 작업에 임하며 한국 표준수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였다. 또한 표준화 사업의 결과를 모아 ‘한국수화사전(2005)’을 편찬하였고, 일상생활 수어집 5권과 법률, 의학 등 10개 분야의 전문 용어 표준 수화집을 발간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수어 문형사전(2007), 표준화한 수어 단어와 문형으로 구성된 한국수어1~5(2007~2012) 등의 결과물을 발간하였다.

표 1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 결과물(2005~2012)

분류	제목	발간 연도
사전	한국수화사전	2005
	한국수화 문형사전	2007
일상생활 용어 수화집	일상생활 수화1	2007
	일상생활 수화2	2009
	일상생활 수화3	2010
	일상생활 수화4	2012
	일상생활 수화5	2012
전문 용어 수화집	법률 수화	2007
	교통 수화	2007
	정보통신 수화	2009
	의학 수화	2009
	천주교 수화	2010
	불교 수화	2010
	기독교 수화	2010
	국어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2010
	경제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2012
	정치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2012
표준수화교재	한국수화1	2008
	한국수화2	2009
	한국수화3	2010
	한국수화4	2010
	한국수화5	2012
기타 교재	수화로 하는 애국가, 국기에 대한 맹세, 한글날 노래	2008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농사회가 수어 연구 방법론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표준화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는 ‘한국수화사전’과 10개 분야의 전문 용어 수화집을 발간한 것인데 결과물들은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수어 사용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의 이유는 국립국어원(2014)에서

진행한 ‘수어 전문 용어 제정 및 표준화 수요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현장에서 수어 표준화가 추진된 전문 분야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사용되는 수어와 다름’이라는 의견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표준화된 수어를 사용했을 때 농인이 이해하지 못한다’, ‘농인이 표준화된 수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표준화된 수어의 형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조이다’ 등이다.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이와 같은 이유는 수어 표준화의 어려움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제임스 밀로이와 레슬리 밀로이[James Milroy, Lesley Milroy(1999)]에 의하면 언어의 표준화란 언어 사회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겪는 과정으로 ‘언어의 선택적인 다양성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음운 체계, 어휘, 언어의 문법에서 작용한다. 또한 언어 표준화는 표준화된 언어라는 최종 결과물보다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은 선택, 보급, 유지, 성문화, 언어 표준 형태의 규정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 과정에서 글쓰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존스톤[Johnston(2003)]도 문해 또는 문자의 존재가 표준화의 과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문자 사용의 출현 또는 급격한 증가가 글을 쓸 때 특정한 형태의 발음 표기, 어휘, 문법을 따라가도록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때 단어의 철자와 선택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화자의 억양이나 방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생산해 내는지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 심지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방언’을 ‘새로 평가되고 만들어진 적합한 어휘들’로 대체하는 것도 배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해는 공문서, 종교 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 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급된다. 표준화된 언어는 글쓰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퍼지게 되며 이것이 없는 언어의 표준화는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수어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외에도 수어 표준화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존스톤[Johnston(2003)]은 그 이유를 제시하며 수어 사회는 구두로 대면하는 언어이기에 표준화에 대해 경험적인 어려움과 장애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어 문자 체계 개발의 어려움(Anderson 1981; Sutton 1981; Johnston 1991)
- 가족, 사회, 직업, 문자가 있는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 개별적 수어(Lucas 1989; Hyde and Power 1991; Grosjean 1996; Kyle and Allsop 1998)
- 세대 간 수어 전승이 단절되는 특성(Hoffmeister and Wilbur 1989; Newport and Meier 1985; Strong 1988; Singleton and Newport 1994)
- 수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광대한 범위의 다양성과 언어 능력(Lucas and Valli 1989; Lupton and Salmons 1996; Hoopes et al. 2001)
- 대부분의 수어 사회에서 넓게 인정되고 가치 평가되는 언어 종류의 부족(Lucas 1989)
- 농교육에서 교수 언어로서 고유한 수어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음(Kyle 1985; Mahshie 1995; LaSasso 2000)

수어 표준화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나 수어 표준화 작업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위한 해결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허일(2003)은 수화 공동체 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표준화를 시도하여야 하나, 짧은 시간 안에 어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정 성격의 수화 단어들을 모은 책자나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대부분의 수화 사전들이

언어학자가 아니라 주로 교사, 사회복지사, 종교 단체 구성원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이들이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가 특정 영역의 용어를 소개하고, 한국어 단어와 수화 간의 대응을 조직화하여 수화 사용을 표준화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수화사전도 이와 비슷한 목적과 참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은 ① 국내에서 출판된 수어책에 수록된 수어 단어 수집, ② 수집된 단어 중에 여러 수어책에서 같은 형태로 표시한 수어 기호, 도상성이 있어 그 의미나 어원을 쉽게 연상 혹은 유추할 수 있는 기호, 손 움직임이 편하고 표시 방법이 단순한 수어 기호 등으로 사전에 수록할 후보 단어 선정 ③ 추진위원회 아래의 실무위원회가 후보 단어의 적절성 검토 ④ 특수학교 및 대학 특수교육과,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의 추천 인사 등을 검토 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어 기호 검토 ⑤ 실무위원회가 검토 위원의 검토 의견 분석·반영 ⑥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수정·삭제·추가 등의 작업 수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은 문헌 자료 수집과 한정된 구성원에 의한 선택 및 조어 그리고 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 사전의 표제어가 실제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점, 수어 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일대일 어휘 대조집 형태로 구성된 점, 몇 사람이 모여 표제어를 선택한 점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 학습자들이 사전을 이용할 때 참고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어의 의미, 용례, 관련어 정보, 사용 빈도 등의 정보가 없어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이와 같이 수화 어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제작을 표준화로 이해하고,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많은 단계를 규정에만 한정함으로써, 사전 본연의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전이 나오지 못하였다. 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전은 수화의 표준화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인의 언어 사용을 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전으로 제작될 필요가 있으며, 수화 조사 연구를 위한 연구 자료를 담은 사전으로 많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Crabtree&Powers(2000), 허일(2003)에서 재인용).

3. 표준화가 아닌 기록

3.1. 수어의 변이

수어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변이가 많은 언어이다. 이러한 특성은 해외의 수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허일(2003)에 의하면 갈라데트(Gallaudet) 대학교 언어학 및 통역학과에서는 미국수어(ASL) 사용을 대표하는 대규모 자료를 비디오 촬영하여 어휘 수준에서의 사회 언어학적 변이를 연구하고자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7곳을 정하여 총 207명의 미국 수화(ASL) 사용자로부터 대표성 있는 언어 자료(corpus)를 모았다. 연구 결과 34개의 수화들 중 33개에서 적어도 어휘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이체(異體)가 존재했고 31개에서 세 가지 이상의 이체가, 28개에서 4개 이상의 이체가, 21개에서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이체가, 10개에서 6가지 이상의 이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킴브리[Adam Charles Schembri(Deuchar, 1984; Kyle & Woll, 1985; Brien, 1992; Schembri et al., 2010, Schembri, 2016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영국 수어도 지역별 변이가 상당하며 그 중에서도 어휘 변이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지역 간 수화 어휘의 차이는 네덜란드 수화에 대한 연구(Shermer, 2003)에서도 나타났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네덜란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목록을 정리하여 농인들의 부모와 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된 콤바(KOMVA)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용 가능한 수화 사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이형(variants)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 한 사람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했다.
- 표준 수화로 불리는 수화들만으로 나열한 경우, 농인 공동체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 지역 간 차이를 무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 지역의 수화를 표준 언어 혹은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표준 언어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국가 수화 사전을 만들어 보급해도 자기 지역의 수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인 공동체 내에서 수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허일, 2003).

존스톤[Johnston(2003)]에 따르면 어휘 변이는 수어 사전 편찬자들이 우려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표준화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시도이다. 수어 사전 편찬자들의 두 번째 우려는 다른 수어자들이 똑같은 수어를 다른 손 모양 또는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음운 변이이다. 음성 언어의 음운 변이 현상과는 다르게 수어의 음운 변이는 지역적 또는 방언의 차이와 잘 연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수어자가 한 종류의 수형 또는 움직임을 다른 형태로 체계적으로 대체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므로 수어의 표준화 형태는 선호하는 말씨가 아닌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변이를 줄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변이의 종류와 원인을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사전은 수어 표준화의 주요한 도구로 고려되었지만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농사회의 수어를 기록하는 기술적인 사전의 편찬 없이 단지 규범만으로 사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표준화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2. 수어의 기록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언어(한국어) 정책은 어문 규범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지만 언어의 다양한 변이도 지켜 나가는 쪽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표준화 사업도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수어를 선택하여 제공하는 표준화가 아닌 한국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기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한 여러 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중의 대표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 정책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수어 관련 법의 기본 이념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용역(2013)’ 사업과 농사회에 필요한 한국수어 관련 과제들을 제안한 ‘한국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2014)’는 「한국수화언어법」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한국수어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은 정확한 대상과 목표의 설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2) 한국수어 자료 구축

정책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수어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수어 말뭉치 관련 사업이다. 체계적인 수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어 자료의 보존을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2015)’ 사업에서는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근거하여 한국수어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수집한 자료에 대해 한국어 번역과 전사를 지속하여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수어 말뭉치는 모든 언어 자료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그 용량이 음성 언어 말뭉치보다 크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료 관리와 처리는 수어 말뭉치 구축에 있어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 외에도 문화 정보 접근에 취약했던 농인에게 한국수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한국수어 문화 정보 구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 박물관 유물에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 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 총 1,052건(2016년 기준)의 한국수어 해설 영상을 구축해 제공하였다.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한국수어 교육은 수어 보급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지만 아직 그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교육 기관과 교수자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근거에 대해 김칠관(2008)은 국내의 한국수어 교육이 1980년대부터 확산되었지만 한국수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언어 태도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에 한국수어를 이해하고 그 실재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수어 어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한국수어 학습자가 수어를 배우고도 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 교원 자격 제도를 개발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바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3.3. 기술적인 수어사전

국내의 수어 연구의 역사는 음성 언어에 비해 짧다. 국외 수화 언어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홍성은(2013)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주제를 다룬

수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의 초기 수화 연구들은 소위 분류사나 일치 동사(agreement verbs) 등 형태론적 주제에 대한 기술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사회 언어학, 운율학, 비수지 신호, 심리 언어학, 토착 수화(village sign language)와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화 연구의 이론적 이슈(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TISLR)’라는 국제 학술 대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들은 많은 사회 언어학자들이 수화의 변이를 연구·분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chembri & Johnston (2013), 영국 수화(BSL) 연구는 Fenlon, Schembri, Rentelis, & Cormier 2013, 미국 수화(ASL) 연구는 Mc-Caskill, Lucas, Bayley & Hill (2011), Lucas (2001)]. 이 외에도 시각 언어인 수화의 운율 체계 연구, 비수지 기호 분야에서는 시선 추적 기술(eye tracking technology)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함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교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농인지와 언어 연구소’, 네덜란드의 ‘네이메헌 막스플랑크 심리 언어학 연구소’ 등의 기관들은 수화의 구조를 분석할 때 기술적 방법을 제공한다. 이 기관들에서는 언어학자가 수화의 구조, 규칙, 패턴을 실제 사용자가 쓰는 대로 기술한다. 또 다양한 방언과 변이형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다양성은 표준화로 시도되지 않고 그 자체로 기록되고 포착된다. 이런 기술적 언어 철학의 영향은 코퍼스 언어학에까지 이른다.

대한민국도 수어를 기술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구축되어 한국수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때 표준화를 위한 규범 제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수어사전은 사회 언어학적 변이를 충분히 다루고 기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한국수화사전은 한국어-한국수어 어휘 대조집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변화를 앞두고 있다. 최근 그 변화의 시작으로 음성 언어

사전의 표제어 배열 방식을 그대로 따른 ‘가나다’ 순서를 벗어나 시각-운동 체계인 수어의 특성에 맞게 사전을 찾는 방식을 보완하였다. 바로 수어 표제어의 형태와 움직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세부 검색 조건을 ‘손 모양(수형)’, ‘손 위치(수위)’, ‘한 손/두 손’, ‘같은 모양/다른 모양’으로 나누고 이 조건들을 조합하여 원하는 단어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농인 이용자와 청인 이용자 모두가 한국수어사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의 한국어 정보에 대한 수어 뜻을 풀이를 구축하고 이와는 별개로 수어 고유의 용법을 담은 용례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의 사전을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한국수어를 기술하는 새로운 사전의 구축도 필요하다. 공간에서 실현되는 시각-운동 체계인 한국 수어의 실재를 사전에 담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며 또한 쉽지 않은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한국수어사전 편찬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더 나은 논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1) 자료 수집

사전 편찬에 말뭉치를 활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자료를 더 빨리 찾고 기술할 수 있다는 단순한 물리적인 가치를 넘어서 어휘, 의미, 문법, 화용 정보 등 모든 언어학적 층위에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더 정확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거시 구조적 측면에서 말뭉치 활용 사전 편찬은 ‘① 사전 편찬을 위한 대규모의 균형 말뭉치 구축 및 구성 → ② 말뭉치로부터 어휘 빈도 자료 추출 → ③ ②의 결과로부터 표제어 목록 선정’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말뭉치를 통해 얻은 표제어 목록은 기존 사전 표제어 목록에 없는 신조어나 구어, 생활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참조 기능을 강화한 사전 편찬을 가능하게 한다(남길임, 2005).

수어의 경우 수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의 부재, 영상으로만 가능한 수어 자료 수집 및 구축, 음성 언어 자료보다 더 용량이 큰 수어 영상 자료의 특성에 따른 처리·보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어 말뭉치 구축은 최근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몇몇 국가들은 수어 말뭉치에 근거한 사전을 출판하였는데 수어 사전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뉴질랜드와 독일의 사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레이철 로커 매키와 데이비드 매키[Rachel Locker McKee & David McKee(2013)]는 2011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뉴질랜드 수어 웹 사전이, ‘웰링턴 수어 말뭉치’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사회언어학 변이 사업(sociolinguistic variation project)’에서 나온 담화 자료들에 근거하여 편찬된 사전이라고 하였다. 또한 홍성은(2013)은 독일 함부르크의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에서 만든 수화 전문 용어 사전이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독일어 한 단어에 대해 수화 하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화 기호들을 보여 주는 사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수어사전도 가공된 자료가 아닌 한국 농인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담고 있는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표제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찬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2015년부터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수어 말뭉치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한국수어 표기

문자 체계가 없는 수어의 연구에서 수어의 표기는 늘 쟁점이 되었다. 허일(2003)에 의하면 문자 없이 음성 언어만 존재하는 언어처럼 수화에 관한 모든 출판물들은 사실 수화를 어떤 수준에서 분석하고, 표현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수화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수화의 기본 구성 요소인 손 모양, 손의 방향, 위치, 움직임, 비수지 기호 수준에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금까지

지 수어를 기록하기 위한 여러 전사 체계가 발명되었으며 이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ignPhon	http://www.leidenuniv.nl/hil/sign-lang/signphon2.html
Stokoe ASCII 버전	http://world.std.com/~mam/ASL.html
HamNoSys	http://www.sign-lang.uni-hamburg.de/Projects/HamNoSys.html
SignWriting	http://www.SignWriting.org
SignStream	http://www.bu.edu/asllrp/SignStream/
Berkeley 전사 체계	http://hd.berkeley.edu/slobinpaper-transcription.pdf

그러나 공간에서 실현되는 언어를 기호로 표기하였을 때 손을 비롯한 얼굴과 몸에서 나타나는 많은 정보를 모두 담기에는 제한적이고,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어떤 수어의 기호 표시를 구어로 설명할 때 상호 동일한 이해 구조를 갖기가 어렵다. 반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용량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음성 언어의 단어를 빌려와 음성 언어의 문자 체계로 수어에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gloss)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 역시 수어에서 나타나는 많은 정보들을 담기에는 제한적이나, 수어의 핵심 의미를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름만 듣고도 수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또한 해당 농사회가 속해 있는 나라의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나오게 될 한국수어사전에는 총체적인 수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사용자 화면에 노출했을 때 적절히 수어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기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존하는 수어 표기 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전 자료의 처리 및 관리, 상호 연동, 검색, 사용자의 이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어의 표기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한국수어 사전의 표제항

미시 구조적 측면에서의 말뭉치를 통한 어휘 기술은 직관에 의한 어휘 기술과 달리, 실제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거시 구조뿐만 아니라 뜻풀이, 문법 정보, 연어 등 관련 어휘 정보 등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남길임, 2005). 하지만 한국수어의 실증적 자료는 최근에야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한국수화사전은 음성 언어 사전의 미시 구조를 따라 표제어, 발음(어떻게 수어를 구사하는지), 품사, 뜻풀이, 관련어 등의 정보를 수록한 상태이다. 하지만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가 수어의 수어소로 수형(handshape), 수향(hand configuration), 수위(location), 수동(movement), 비수지 신호(non-manuals)를 분석한 것처럼 수어는 그 구조 자체가 음성 언어와 다르다. 이에 따라 사전의 표제항 구성도 달라져야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덴마크수어사전(2008)의 경우 수어 표제어에 해당하는 글로스(gloss)와 그것을 표현한 수어 영상, 수어의 위치, 수어의 음성 언어 대역어, 수어와 함께 나타나는 입모양(mouth gesture), 비슷한 형태의 수어 등 수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수어에 필수적이며 사전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의 수어사전도 충분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어의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이를 사전에 담아 한국수어 사용자와 학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농인의 참여

사전 편찬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그 결과물의 대상자가 해당 언어의 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자 및 학습자 모두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한국수어사전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편찬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구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히일(2003)은 사전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배경, 수화 능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와 역량, 모화자 여부, 농인에 대한 이해 정도, 농인 공동체 참여 여부, 농인과의 생활 경험 유무와 질, 사전 제작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수화 사전과 수화 사전 제작자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인과 수어에 대한 존중을 담아 사전 편찬 과정에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지 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인의 실제 수어 사용을 제대로 반영한 사전의 편찬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수어 사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인 전문 인력의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진행된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의 과정을 살펴보고 수어 표준화가 어려운 이유와 수어 연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은 농인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수어에는 언어 표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쓰기를 위한 문자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변이가 있고, 수어 표준화를 위한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기반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언어학은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데 몰두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지키며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변하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도 한국수어를 기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수어사전은 이 기조에 맞추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그 변화의 시작으로 한국어

의미에 대한 한국수어 뜻풀이와 한국수어 용례를 구축하는 등의 사전 정보를 보완하여 기존 사전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수어의 실재를 담은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 편찬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로 자료 수집, 한국수어의 표기, 한국수어사전의 표제항, 농인의 참여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았는데 향후 수어 연구 방법론이 더욱 발전하여 한국수어 관련 사전 편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14), 《한국수어 연구 자문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김칠관(2008), <한국수화와 수화언어 환경. 수화연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색>, 제11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 남길임(2005),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의 동향과 지향 방향>,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75-98쪽.
- 허일(2003), <한국 농인의 언어 사전 편찬에 있어서의 쟁점 연구>, 제5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 홍성은(2013), <국의 수화 언어학 연구 동향>, 《새국어생활》, 23-2, 국립국어원, 88-99쪽.
- Adam Schembri(2016), <Towards a Corpus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 Short Report>,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국립국어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172쪽.
- Jhonston(2003), <Language Standardization and signed Language Dictionaries>, 《Sign Language Studies》, vol 3, Published by Gallaudet University Press, 431-468.
- Milroy, J., & L. Milroy(1999) 《Authority in Language: Investigation Standard Englis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achel Locker Mckee & David Mckee(2013), 《Making an Dictionary of New Zealand Sign Language》, Vol 23, Lexicos, 500-531.
- 덴마크수어사전 <http://www.tegnsprog.dk>